

벤처가 만드는 따뜻한 겨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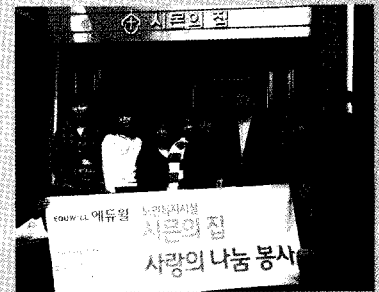
추워지는 날씨에도 더욱 뜨거워지는 벤처들의 나눔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자지불선도기업 이니시스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의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연탄나눔'을 펼쳤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기업 코난테크놀로지는 사내 봉사동아리의 주도로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교육콘텐츠기업 에듀윌은 사랑의 수지침봉사와 함께, 장학재단을 설립해 자라나는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벤처가 만드는 따뜻한 겨울에 더 많은 벤처기업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료제공_ 이니시스, 에듀윌, 코난테크놀로지

* 에듀윌, '에듀윌 장학재단' 설립... '2010년 에듀윌 장학생' 모집 - 반딧불이 사회봉사단, 사랑의 수지침 봉사활동도 펼쳐

자격증 공무원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 www.eduwill.net)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기 위해 에듀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2월 31일까지 '2010년 에듀윌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학교 1~3학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있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교내외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다. 국가나 학교 그 외 단체에서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청절차는 장학생 추천권자가 에듀윌 장학재단 홈페이지(sf.eduwill.net)에서 추천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경제상황증빙서류와 학교생활기록부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접수(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를 하면 된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중 '에듀윌 장학생'을 발표할 예정이며, 장학금으로 총 1,2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4,800만 원으로 장학금을 늘려 보다 많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듀윌 양형남 대표는 "교육대표기업으로서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경을 잘 이겨내고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므로써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창단한 '에듀윌 반딧불이 사회봉사단'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파주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시몬의 집'을 찾아 수지침봉사를 진행했다. '수지사랑 수지침 봉사단(안승재 단장)'과 함께 에듀윌 반딧불이 봉사단은 어르신들께 수지침과 손맛사지봉사를 해드리기 위해 봉사활동 시작 전 수지침 전문 봉사자에게 관련 교육을 받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에듀윌 반딧불이 사회봉사단과 수지사랑 수지침 봉사단은 평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시몬의 집 어르신들 모두께 수지침을 놓고 손마사지를 성심성의껏 해드리며 정겨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봉사 후에는 수지침 세트와 세제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선물했다. 이외에도 시몬의 집에서 관리하는 밭에서 배추 묶기 노력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 이니시스가 만드는 따뜻한 겨울 - 사랑의 연탄나눔

전자지불(PC) 선도업체 '(주)이니시스' (대표 김중태, www.inicis.com)는 11월 3일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일대에서 김중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70여 명이 참가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자는 취지와 함께, 창립기념일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자는 이니시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 이니시스는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연탄사용가구를 위해 밥상공동체에 사랑의 연탄 10,000장을 기부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연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여 세대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직접 가정에 전달하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밥상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연탄은행'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기부한 연탄은 지역별로 저소득 가정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니시스의 전수용 사장은 이번 '사랑의 나눔' 행사를 추진하기 전부터 연탄은행 이사로 재직, 지속적인 사회봉사 등 다양한 이웃사랑을 누구보다 먼저 실천해 왔다.

이니시스 김중태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땀 흘려 나눈 이번 행사가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과 베품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난테크놀로지, 나눔바자회 '아름다운토요일' 개최

소프트웨어전문 개발사 코난테크놀로지(대표 김영섭, www.konantech.co.kr)는 10월 31일, 아름다운가게 송파점에서 '아름다운토요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눔과 순환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의 소외된 이웃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코난테크놀로지 사내 봉사동아리 코난 소통회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코난 소통회는 회원이 30여 명에 달하는 코난테크놀로지 최대 규모의 사내 동아리이다. 사회봉사의 뜻이 있는 몇몇 직원이 모여 활동을 벌이던 것이 전사적으로 호응을 얻어 지금의 코난 소통회가 되었다. 소통회란 동아리 이름은 봉사로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들은 '아름다운토요일' 행사를 위하여 한 달 전부터 사내에 기증박스를 설치, 임직원들로부터 물품기증을 받았다. 행사 당일에는 임직원들이 기증한 800여 점의 물품을 소통회원이 직접 진열하고 판매했다.

코난 소통회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연구원은 "임직원이 정성스레 모은 물품이 아름다운토요일 행사를 통하여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난테크놀로지와 아름다운가게의 인연은 지난해 아름다운가게 업무 시스템 '벼리'에 코난테크놀로지 검색엔진 '독크루저'가 제공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양사는 '아름다운토요일' 행사 참여는 물론, 연말에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배달에 이르기까지 나눔과 순환의 뜻을 함께 하고 있다.